

어려운 세상이다(전쟁, 기후, 경제, 팬데믹). 언제 끝나고 회복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질문을 했다. 예수님의 답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맡기라”고 했다.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그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회복하고, 언제 회복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날들이 와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회복이 다른 것이다.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이다. 그 날을 위해 주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다고 했다(9절).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다(11절)

이제 그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 주신 해답이다(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 “예루살렘”이 어디를 의미하는가? 단순한 지역이 아니다. “나 자신”이다. 내가 힘을 얻고, 증거를 얻으니 나와 관계된 가족, 자녀, 지역이 살고, 그것이 땅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70지역, 70종족, 70나라).

결국 시작은 나부터 살리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볼잡을 연약이 “나를 살리는 70인 제자”이다. 축복받고 응답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같이 그렇게 된다(흐름, 문화). 행복 바이러스라고 한다.

무너지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힘이 있든지, 아니라면 일단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힘이 없으니 결국 같이 무너지고, 동반 중독에까지 가는 것이다. 우리 뇌의 측두엽에는 의욕 센터, 행복 센터가 있어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늘 밝고 행복을 느끼고 살고, 주변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고 한다.

1.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행복할 수 밖에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창1:26-28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 다스리는 자”로 살았던 것이다

1) 마귀에게 속아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에 빠져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다 놓친 것이다.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세상이 어려운 이유다.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요8:44, 엡6:12)

2) 그리스도가 세가지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근본 문제 해결).

① 제사장의 권세로 욕심과 죄의 권세에 무너지는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다(롬8:1-2)

② 왕의 권세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이다(요일3:8)

③ 선지자의 권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길이 되어 주신 것이다(요14:6)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고, 실패하고 것들려 살 인생 아니다. 이제는 사단과 싸워 이길 권세를 가진 것이다.

나의 오늘과 미래를 그 분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3)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요1:12, 롬8:15-17)

적어도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릴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이다. 성령의 내주(고전3:16), 성령의 인도(요14:16-18),

성령의 능력(행1:8), 천사 동원(히1:14), 사단과의 승리(눅10:19), 천국 시민권(빌3:20), 세계정복(마28:18-20)

① 문제와 위기를 만나도 외롭고 두려울 이유가 없다.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다.

② 누구하고 경쟁하고 싸울 이유도 없다. 이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③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적 리더로, 써밋으로 세워야 한다. 세계 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빌 하든지 세가지 자제로 하면 된다고 했다(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2. 세가지를 도전하면서 내 삶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채워주신다(딤후2:10-21)

1) 모든 문제, 사건,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라(심리학에서는 메타 인지 능력)

내 기준, 수준, 표준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것이다(뇌 훈련이다)

① 복음의 눈으로 보라.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요19:30)-나를 복음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롬8:29). 문제도 지나고 보면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었다.

이것을 정말 믿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다. 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했다(빌4:6-7)

②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광야에서 늘 낙심, 불평, 원망하다가 모든 축복을 다 놓친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다(고전10:11)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시겠다는 것이다(마8:13, 마9:29, 막16:17)

우리가 누릴 축복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다(시103:19-21)-나를 보좌화

③ 미래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그것이 CVDIP)-나를 미래화

지금의 현실과 환경이 모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향해 가는 인생이다(여정)

④ 전도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살리는 것이다(요3:16, 딤후2:4)

실패한 자, 악한 자, 원수도 살릴 중심으로 보면 내가 할 일이 보인다. 70인 제자가 할 일이다 - 나를 제자화

2)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으라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은 데, 힘이 없으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고, 몸도 안 움직인다.

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오력)을 약속하신 것이다(행1:8).

내가 나를 컨트롤 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 충만이다. 보좌의 축복 따라온다.

② 반드시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1:1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누릴 축복이다.

지속해서 훈련해야 한다. 기도가 훈련된 사람과 아닌 사람은 갈수록 인생에 차이가 날 것이다.

왜 문제가 오는가? 빨리 안 끝나는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가능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다.

새벽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막1:35). 하루의 첫 시간인 동시에, 방해 받지 않을 수 있고, 뇌도 살아난다.

3) 내 전문성을 찾아 살리라.

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다.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다(마25:21)

70인 제자는 자기의 달란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들이다.

내게 맡겨진 일을 대충하지 마라. 또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봐라. 반드시 유일성이 된다.

② 우리는 237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세계화시키는 훈련을 해라(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훈련). 하나님은 준비된 그들을 세계로 보내셨다.

결론-나를 살리라. 그것이 내 가족과 세상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미션이다.